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2020. 4. Vol. 299



기획특집_ 남대천의 재탄생, 양양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다.

전염의 위험은 멀리,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해 우리도 잠시 멈추어요”

1.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 연기나 취소
2. 발열, 호흡기증상 있으면 집에서 휴식하기
3. 생필품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 외출 자제하기
4. 타인과 악수 등 신체접촉금지, 2m 건강거리 두기
5.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6. 매일 주변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희망양양

- 04 기획특집_ 남대천의 재탄생, 양양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다.
- 10 ISSUE & PEOPLE_ 육군 제8군단
- 13 발걸음 촌촌, 마을 가는길_ 서면 장승 2리
- 16 맛있는 양양여행_ 양양 장떡

의기양양

- 18 YANGYANG NEWS
- 20 의정소식_ 제2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 22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_ 조산리와 대포영

열린양양

- 24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6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28 공익광고

COVER STORY



남대천 벚꽃길
(사진 : SNS가자 전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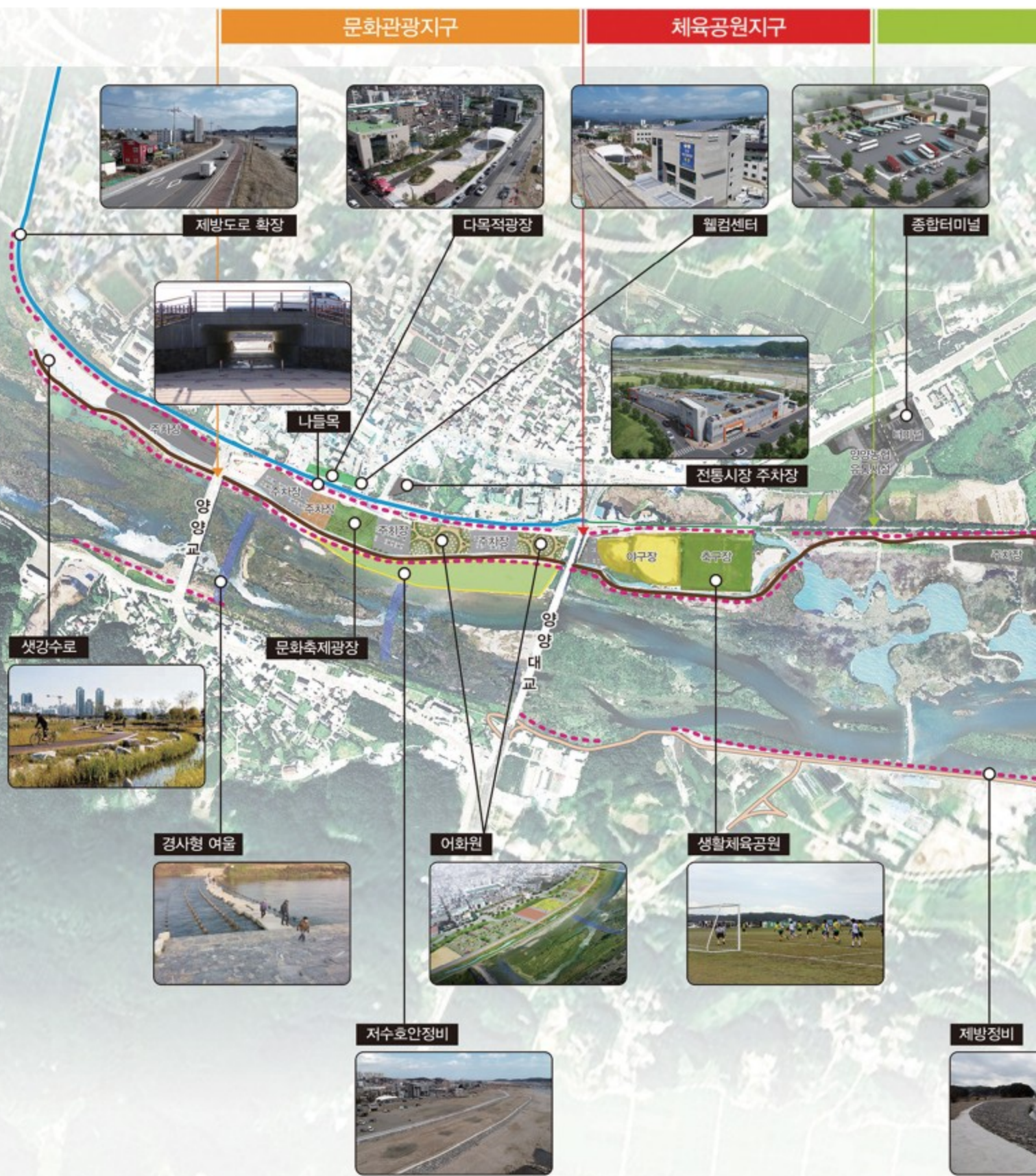
양양소식 · 299호

| 발행일 2020년 4월 2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ssugi0129@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남대천의 재탄생, 양양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다.

관광과 지역 경제가 어우러지는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3만 군민을 책임지는 양양군의 젓줄이자 양양의 역사와 문화의 발상지 남대천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매력적인 도시 재창조로 명품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2014년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지역 문화와 청정자연이 조화를 이룬 힐링 공간으로 남대천을 재창조하고 있다. 남대천의 화려한 르네상스 시대와 함께 우리 군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가 크다. 7년째 우리 군이 역점 시책으로 펼치고 있는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내용과 성과, 향후 계획을 살펴본다.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남대천을 재창조한다.

산과 바다, 강을 품고 있는 우리 군은 청정자연이 가장 손꼽히는 자량이다. 이 가운데서도 양양 남대천은 그 길이가 60km에 이르는 강원 영동지역 동해안에서 가장 크고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회귀 어종의 대표적인 모천으로 꼽힌다. 남대천은 우리 군민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관리와 활용 면에서 배제돼 왔다. 생태계 파괴와 난개발 등으로 인해 지속된 악순환을 겪으며 건천화와 재첩 폐사, 연어 회귀율 감소 등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 같은 남대천을 되살리고자 우리 군은 2014년부터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이하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다. 생태복원과 함께 우리 군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기 위해서 남대천을 새롭게 정비하는 마스터플랜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 개발 등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이다. 생태환경 복원, 생태관광지 조성, 남대천 주변지역 연계개발 사업 등 3개 분야 총 17개 과제에 총사업비 700여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단계인 하천정비 사업과 남대천 순환도로 군도 4호선 도로 개설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남대천의 자연을 회복하다

남대천을 되살리고자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서 어성전, 범수치리 일원의 남대천 상류 생활하수처리시설을 늘리고 오색지역 하수처리 강화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농업용 보와 어도에 대한 관리 개선, 토속어종 치어 방류와 이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물길을 막았던 20여 개의 보를 허물어 연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수로를 만들고 어족자원 저감 요인을 분석해 서식환경을 개선했다. 앞으로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개선과 생태보전, 복원을 통해서 남대천의 자연이 회복해 가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해 물 환경측정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양 남대천이 '매우 좋음' 등급을 받았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52개 항목을 월별로 분석 평가한 결과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7단계 중에서 가장 좋은 등급을 받아 남대천 생태환경 복원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 도시 매력 재창조

남대천을 문화와 청정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과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수변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서 남대천 양양읍 서문리 후천에서 조산리 해안선까지의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해 하천 내 이용 가능한 둔치 조성 등 친수 공간 기반 구축을 올 한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대천 둔치 부지를 활용해 연어가 회귀하는 공원이라는 의미의 '어화원(漁花園)'이 조성된다. 야생화 꽃밭과 이벤트 광장, 대규모 주차장을 갖춘 생태공원을 오는 7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장날마다 극심한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대천 제방에 보행자 통로박스인 '연어 나들목'을 지난해 설치했다.



남대천 주차장, 잔디광장과 양양전통시장을 잇는 통로로 지역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도 해소돼 큰 호응을 얻었다. 보행통로와 함께 유압식 수문을 별도로 만들어 안전성에도 만전을 기했다. 수상레저 스포츠 체험공간으로 카누, 카약, 전통뗏목, 오리배, 수상자전거 등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선착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 중에 있다. 남대천 하천정비 사업으로 조성되는 셋강형 수로를 따라서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하천 생태체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색 있는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군민이 사계절 이용하는 양양 남대천 송이조각공원의 주변 환경을 정비해 생활체육공간인 파크골프장을 올해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남대천과 자연친화적인 공간의 재창조가 기대된다.



종합터미널 조감도

남대천과 연계한 지역개발로 도심 곳곳이 문화향유, 휴식 공간

남대천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로 도심 곳곳이 문화를 향유하는 휴식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해 양양전통시장에 조성된 다목적 광장은 남대천 둔치와 연계한 문화축제 전용공간이다. 평소에는 전통시장 보조 공간과 도시공원으로 활용하고 축제가 열릴 때는 먹거리 장터와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을 시내 권으로 유도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목적 문화체험광장이다.

지난해 문을 연 웰컴센터는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과 쉼터로 자리매김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웰컴센터는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농특산물 판매장, 양양 쌀로 만든 빵가게, 카페, 작은 영화관 등이 운영 중이다. 양양 농특산물 판매장 '코코양양'은 양양 장날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농특산물을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양양웰컴센터

우리 군민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영화관 개관이다. 그동안 양양에서는 영화를 보기위해서 타 지역으로 나가야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군민의 문화향유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양양군 작은 영화관이 문을 열었다. 더욱 매력적인 것은 일반영화관의 60~70%수준의 관람료로 매일 5~7편의 최신 개봉영화를 서울과 동시에 개봉하고 있어 군민의 만족도가 높다. 앞으로 우리군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인 웰컴센터가 군민의 여가 생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우리 군에 또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이 내년 5월 문을 열 계획이다. 현재 양양읍 남문리에 위치한 양양시외버스터미널은 주변 혼잡과 협소한 부지로 인해 대형버스 전·출입의 어려움과 이용자의 불편함이 지적돼 왔다. 지난 2008년 터미널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그동안 터미널 이전 논의가 있어왔는데 드디어 올해 이전사업이 본격화된다. 양양읍 송암리로 이전하는 양양종합여객버스터미널은 이용의 편리성과 쾌적성뿐만 아니라, 요즘 트렌드에 맞춘 복합문화공간 등을 염두에 두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착공을 시작해서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양종합버스터미널의 이전으로 빠르고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터미널은 물론이고 넓고 쾌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 나가게 될 것이다.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관광명소 남대천의 재탄생

양양교와 송현 제방을 잇는 군도 4호선 확포장 사업 1단계에 이어서 올해는 송현 제방과 낙산대교를 잇는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된다. 양양읍 월리 남대천 남측 제방을 따라 손양면 가평리까지 잇는 남대천 순환도로가 개설되면 국도 7호선과 기존 남대천 제방도로, 낙산대교를 통해 남대천을 한 바퀴 도는 경관형 도로가 완성된다. 이로써 교통 편의는 물론 남대천 인근 유적과 관광지까지 연계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 대부분 올해 마무리된다. 이미 웰컴센터, 연어 나들목, 주차타워 등이 순차적으로 완공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의 발길도 많아지고 있다.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인구가 유입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져서 우리 군이 다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남대천을 자연과 환경, 문화, 지역개발, 관광을 아우르는 명품하천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남대천의 재탄생으로 양양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양양의 새로운 역사, 양양의 르네상스가 열리게 될 것이다.



수상레저스포츠체험공간 조감도



어화원 조성



군도4호선 공사

국민의 안전 최우선! 바이러스 잡고 양양군민 지킵니다!

양양에 사령부를 두고 고성에서 삼척까지 강원도 동해안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 제8군단은 모든 군인들이 한 번쯤은 근무하고 싶어 하는 곳으로 통한다. 전군에서 유일하게 해안경계와 GOP₄GP 전방철책을 동시에 수용해야 하는 경계책임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상 발생하는 폭설, 가뭄, 태풍, 산불까지 다양한 재난 상황까지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8군단!! 이번엔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섰다.



방역 최전선에서 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방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1월 말, 8군단은 방역대책 본부를 편성했다. 가장 먼저 개인 및 부대 위생관리와 부대 출입자에 대한 통제 대책을 시작한 것이다. 외부인이 많이 오가는 위병소에서는 출근길은 물론 출타한 장병의 부대 복귀, 외부인의 부대 방문 시 발열을 체크하고 발열이 확인될 경우 선별 진료소 이송 등의 대응 조치를 마련했다. 부대 내 방역은 물론 양양공항을 비롯해 인천, 김포공항의 검역·통역 인원을 지원했다.

3월에 들어서는 양양보건소의 요청에 따라 특공대대 용사들을 투입해 군내 6개 읍·면의 면사무소와 농협, 우체국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설 방역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군에서 최초로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방역 활동을 지원했다. 17일부터 3일간 양양군을 비롯한 고성과 속초 등의 43개 학교에 매일 220명의 장병들을 투입했다.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건과 시설 등에 소독제를 뿌리고 일일이 닦아내는 방식으로 기존 대규모 방역보다 꼼꼼하고 치밀하게 소독하는 방식이다. 개학 연기에 따라 추가 방역이 필요한 경우 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축된 지역경제 함께 살려요.

8군단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권 살리기도 동참하고 있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I ♥ 영동데이'라는 슬로건 아래 2만 여 명의 용사들은 점심시간이면 분대 단위로 외출해서 부대 밖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용사들에게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코로나19로 용사들의 외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되자 포장, 배달 등의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직접 식당을 방문하는 대신 배달을 이용하거나 간부들이 식당을 찾아가 음식을 포장해와 병영식당과 생활관 등에서 함께 먹는 방식이다. 용사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중화요리, 햄버거, 피자, 국밥, 컵밥, 분식 등의 맛집을 검색해서 영내에서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들을 찾아내고 주문할 수 있어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 중인 장병들에게 안정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주 2회씩 지역 외식업체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간부들이 부서별로 외식하는 날로 정한 통통데이 역시 배달 등의 방식으로 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휘관들이 부대원을 격려할 때에도 지역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온누리상품권 등을 활용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감자 소비가 줄자 울며 겨자 먹기로 강원도 농민들이 싼값에 저장 감자를 처분하고 있는 가운데 8군단 장병들은 감자 팔아주기 행사에 참여해 총 8천 상자 4천만 원 규모의 감자를 구매했다. 병영식당의 감자 메뉴를 기존의 130%까지 추가 편성해서 감자 소비를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재난 위기 상황, 함께 극복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강창구 군단장은 지난 달 3일 '하나 된 힘으로 코로나19를 잘 이겨 냅시다'라는 제목의 지휘서신을 전 부대에 하달해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국토방위의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23사단 김양수 해안감시장비운용대장은 '더욱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튼튼한 안보로서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비롯하여 겨울 폭설, 봄·가을 가뭄과 산불, 여름 태풍 등 여러 재난 상황을 경험한 영동지역에서 8군단은 특별한 존재 가치가 있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양양군과 영동지역 지킴이로서 전력을 투입해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디딤대를 자처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동해안산불방지센터와 협력해 산불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군 헬기 등 진화작업에 필요한 교육과 진화장비 사용요령 등을 실제 병력들을 투입하는 훈련 등 또 다른 재난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힘을 모으고 서로 응원하면서 재난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최전선에 나서주는 8군단 장병들의 모습은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가슴에도 따뜻한 온기를 선사한다.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이번에도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글·사진: 8군단, 편집부〉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서면 장승2리

폐광지에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한마음이 된 주민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생애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를 지나게 된다.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절을 일컫는 말이다. 한때는 국내 최대 철광 생산지로 번창했던 장승리의 '화양연화'는 폐광과 함께 이미 옛 기억 속에 퇴적되었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장승2리 주민들은 다시 한번 아름다운 시절을 되찾으려 한다.



철광산으로 호황기를 누렸던 마을



설악산 관모능선 사향골에 위치한 장승2리는 철산마을이라는 이름처럼 '철'이 많이 나는 곳이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에 조달할 무기 제조를 목적으로 일본인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개발된 이곳 철광산은 광복 후 폐광되었다가 1956년에 국유화되면서 국내 철광석 생산량 60%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지로 급부상했다.

지금도 나이 지긋한 마을 어르신들은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 양양의 철광업소에 취직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양양읍내에는 없었던 영화관을 비롯하여 목욕탕, 당구장, 주점 등 각종 편의시설과 유흥업소가 들어섰다. 짜장면 한 그릇이 15원 남짓하던 1960~70년대에 철광업소 직원 월급이 3만 원 정도였다고 한다. 넉넉하고 따뜻한 시절이었다.



하지만 세월은 '변화'를 동반하는 법. 승승장구하던 철광업소는 광업의 침체, 생산량 저하, 인력 부족으로 1995년에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그때 장승2리 주민들 대다수가 일자리를 잃었다. 먹고 살길이 막막한 젊은이들은 일거리를 찾아 외지로 떠났고, 변화했던 마을은 적막한 산촌이 되었다.

빈손에 희망을 쥐고 일어서다

현재 장승2리에는 26가구 41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과반수가 고령층이다. 자녀들이 외지로 나갔거나, 광산에서 배우자를 잃고 혼자 된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 폐광 이후 농사지을 땅도, 돌아갈 고향도 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침체한 마을이 다시 들쭉이기 시작한 건 2011년 새농촌건설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다. 마을이 쇠락해가는 것을 그저 손 놓고 볼 수 없었던 주민들은 다시 한번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보자며 의기투합했다.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콩과 고추 등의 작물을 마을 공동으로 경작하여 소득 기반을 다졌다. '철'을 테마로 한 '추억의 양양철문화축제'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덕분에 2013년에는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이라는 성과도 올렸다. 하지만 이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했고, 그동안의 노력이 무색하게 마을 사업은 정체되었다. 2018년부터 마을 일을 맡은 김지상(58세)이장은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서로 헐뜯지 말고 칭찬만 하자. 그래야 동네가 발전한다.'라며 강조했다. 그리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마을 기반 시설 확충은 물론, 경제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했다. 그 일환으로 외부 업체와 협력하여 마을 꽃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재활용 수거 및 판매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며 수익 창출을 꾀하고 있다. 작년에는 '2019년 노인복지사업'의 지원을 받아 주민들로 구성된 들깨 작목반을 운영했다. 모종 심기부터 수확까지 땀 흘리며 함께 일하는 동안 소원했던 이웃 간의 관계도 돈독해졌다.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이 많지 않았지만, 수확한 들깨로 짠 들기름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했다. 올해는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풍작을 거두고 판매까지 연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행복한 노후, 밝은 미래를 꿈꾸며

지난 1월, 마을에는 새로운 공간이 하나 생겼다. 바로 장승2리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이다. 외부 활동이 적은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껴 양양군의 지원을 받아 마을 내 경로당을 지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는 하루에 한 번 이곳에 모여 다 같이 식사를 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많습니다. 난방비가 아까워서 한겨울에도 전기매트 하나로 버티세요.



그 오랜 세월을 광산에서 일하며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이제라도 혜택을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면서 노후를 편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주민들의 행복한 삶. 김지상 이장이 본업인 포클레인 기사 일을 제쳐두고 마을 일에 매진하는 이유이다. 그에게 처음 이장직을 권유했던 이상선(79세) 노인회장과 정음전(73세) 부녀회장 역시 그와 뜻을 함께하며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있다. 덕분에 마을 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주민들은 이제 마을 일이라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동참한다.

이번에 취재진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어르신들이 추운 날씨에도 솔선수범해서 마을 곳곳을 청소했다고 한다. 마을 일에 참여하지 못하면 미안한 마음에 짬뽕이라도 털어 간식을 사고, 낫선 이가 찾아오면 냉수라도 꼭 대접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에 가슴이 훈훈해진다. 마을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줄 아는 주민들의 마음 씀씀이가 장승2리를 더욱 빛나게 한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김지상 이장. 그는 다른 지역의 사례까지 꼼꼼히 조사하며 마을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과 '농촌건강장수마을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문화가 있고, 아름답고, 어르신들이 웃음꽃을 피우는 마을로 만들겠다는 그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20년이 훌쩍 넘은 초고령화 마을 장승2리. 어떤 이들은 황혼기를 맞이한 이 마을의 미래를 걱정하지만, 장승2리 주민들은 앞으로 젊은이들이 찾아와 터를 잡고 삶을 일구어갈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마음을 모으고 있다.

〈글·사진 편집부〉



조선시대 때 비상식량으로 만들어 먹었던 말린 된장장떡

부침개는 알아도 ‘적’은 모르는 양양의 내림 음식문화 ‘양양 장떡’

한 지역 사회를 대표하거나 대표할 만한 음식과 음식문화는 단순히 본능적인 먹을거리의 속성만이 아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끼리의 상호 작용에 따른 삶과 문화, 제도와 풍습, 역사와 가치관 등과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의 문화적 현상을 거치게 되면서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음식과 음식문화이다. 그래서 존재적 신념처럼 고찰되고 있는 음식과 음식문화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 지역 사회의 삶과 문화에 대한 답변서와도 같다. 앞으로도 무한한 고유적 소재로서 한 지역 사회의 삶과 문화를 기록하게 될 음식이 갖는 가치와 효용성 측면에서 어느 음식이고 점심點心처럼 마음에 점點 하나 찍듯 무심하게 먹을 음식은 없다. 이러한 양양의 음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으로 ‘장떡’이 있다.

떡도 아닌데 떡이라고 불리는 장떡의 진실

예부터 '오덕五德'이라 하여 단심丹心, 항심恒心, 불심佛心, 선심善心, 화심和心을 품은 된장음식보다 고추장 음식을 유달리 즐겨먹는 양양 사람들의 칼칼한 입맛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았던 음식이다. 사실, 우리가 먹었던 장떡은 음식의 성질로 따지면 엄연히 전이나 부침개의 일종으로 양양말로 '장적'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장떡이라 한다. 정해진 재료 또한 따로 없고, 누가 만들어도 쉽고, 계절 없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으니 격식도 없는 전형적인 촌村 음식인줄 안다. 하지만 본래의 장떡은 우리가 먹던 장떡과는 전혀 다른 음식이었다. 지금처럼 별미나 별식으로 먹기 위해 만든 음식이 아니라, 겨울철에 먹을 저장용 반찬 이었고, 먼 길을 떠날 일이 있을 때 먹기 위한 행찬(行饌)음식이었으며, 피난길에 먹을 비상식량으로 말려 두었다가 찌거나 기름에 부쳐 먹던 '말린 식량'을 뜻하는 건량(乾糧)식 떡이었다. 만드는 법 또한 지금의 장떡과도 달랐다. 귀했던 고추장 대신 된장 반죽에 간장으로 밑간을 한 후, 상하기 쉬운 나물 같은 부재료를 넣지 않고 오직 찹쌀가루나 뽕쌀가루만 버무려 반죽을 만들고, 먹을 크기로 동글납작하게 빚어 채반이나 솔잎에서 꾸덕꾸덕하게 말려 향아리에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찌거나 기름에 부쳐 먹었던 된장떡의 일종이었다.

양양 특유의 음식문화 '적' 부침개

말린 된장떡에서 고추장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먹기 시작한 불과 330여 년부터 지금의 고추장으로 만드는 장떡을 만들어 먹기까지 양양 또한 된장떡의 본래 사연만큼이나 삶과 문화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역사가 있었다. 전쟁도 겪었고, 피난도 떠났고, 겨울에 먹을 반찬도 마련해야 했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 한 끼 때우듯 때서리로 먹던 양양장떡 역시 이처럼 삶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 만들어 먹어왔던 양양만의 고유한 음식이었다. 적어도 양양 음식의 본질과 고유성이 맞잡, 먹방, 쿡방이라는 행위 자극적인 외식문화 트렌드의 출현과 지역관광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15여 년 까지만 해도 말이다. 또한 부침개나 전을 '적'이라고 하여 감자전을 '감자적'으로 불리던 양양 특유의 음식문화 고유어도 사라졌다. 이러한 음식과 음식문화의 변화와 지역 사회의 문화적 현상을 거치게 되면서 옛것에 대한 그리움만으로 남게 된 양양장떡이다. 소고기까지 넣어 당대 최고의 장떡으로 유명하였던 '개성장떡'보다 양양 장떡의 맛과 추억을 더욱 그림게 하는 것은, 그 해 4월 반질 반질한 솔뚜껑에서 느른하게 부쳐 먹던 '적부침'이 생각나서 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양양의 장떡은 오히려 '장적부침'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옛 음식이다.

〈글·사진: 강원도 외식저널대표 황영철〉



옛 단오날과 백중날에 즐기던 물맞이 풍습때 막숯물과 즐겨 먹었던 장떡





YANGYANG NEWS



전국 최초 「서핑 스파 라운지」 오픈

서핑 스파 라운지는 죽도 서프비치에 돔하우스 78㎡와 스파시설(자쿠지) 5개를 설치하였으며 3월7일부터 주말마다 운영에 들어갔다. 관광비수기인 겨울에도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겨울 서퍼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보온성이 높은 돔 하우스를 죽도해변에 시범사업으로 마련하였다. 돔하우스 내부에는 스파시설까지 갖추어 죽도를 찾는 서퍼들에게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앞으로,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에게는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서핑 양양을 전국에 전파하는 거점으로 적극 활용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방역활동, 양양군이장협의회 · 양양읍이장협의회

양양읍 이장협의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부터 4개조로 나뉘어 양양읍 군행리 부터 율리까지 양양읍내 마을 구석구석 촘촘한 방역활동을 펼치는 한편,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안내문도 함께 배부했다. 또한 양양군 이장협의회는 3. 25일 양양읍내, 전통시장 일대에 방역을 실시하고 손소독제, 코로나19 대응 안내전단지 등을 배포했다.





양양군자원봉사센터, 코로나19 '안심 마스크' 제작·배부

양양군자원봉사센터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사용량 급증으로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인 '안심 마스크' 3,500매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마스크는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배부 및 취약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양양군은 손세정제 6천병을 확보하여 전통시장,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경로당, 학교 등 공공 및 다중이용 시설 1,739개소에 배부하여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개발공사(가칭) 설립으로 명품도시 양양 완성

미래 양양군 발전을 견인할 도시개발사업, 전원택지 개발, 관광단지 조성 등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행정절차로 지연되는 사업을 정책결정만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사에 현물투자한 균유지를 집중개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익은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칭 양양군지역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공사·공단 복합형 기능으로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이 시급한 만큼, 공사를 올해 안에 설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3.16일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24시간 365일 주민 안전망 강화

2018년부터 추진해온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 시범운영 기간을 마무리하고 3.16일부터 실시간 범죄예방 및 재난 등 주민 안전을 위한 통합관제를 실시한다. 군청사 제2별관 3층에 마련된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스킵존, 시설물, 재난, 산불 감시 등 목적별로 CCTV 총 343대를 통합해 관리에 들어간다. 관제 인력은 총 8명이 4조로 나뉘어 주·야간·심야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실시하며, 요일·시간대별로 중요 관제대상을 선별해 효율적인 선별 관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방안 마련 나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소 이용의 날 운영, 전 직원 점심(저녁) 식사 지역식당 이용하기, 양양물을 통한 할인행사 개최로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시장상품권 구매 확대 검토 등의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코로나19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양양국제공항, 양양전통시장, 시외버스터미널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읍면별 6개 권역에 민간위탁방역을 실시하는 등 방역소독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 제2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원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20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 등)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으며,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해 의견청취하였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봉균 의원, 간사 이종석 의원)를 구성하여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임시회 기간 동안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6건의 조례안 심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봉균)는 3월 20일 위원회를 열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제정 1건, 개정 5건)을 심사했다.

의원들은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군민 안전 생활을 위해 좋은 시책이므로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과 관련해 우리군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삶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이번에 상정된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3월 19일 의장실에서 제246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김우섭 의원, 박학원, 이장섭 전직 공무원 등 3명이 선임됐다.

고제철 의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양양군 결산검사위원직을 수행함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예산낭비 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군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활동하며, 양양군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하여 감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한 양양군수는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제출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결산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산리(造山里)와 대포영(大浦營)



대포만호영

조산리의 유래

옛날 지금의 조산리 마을은 산맥이 바닷가까지 이어져 있지 않고 중간에 끊어져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고승이 “그 산맥이 끊어져 있어 훌륭한 인재가 나지 않는다.” 고 일러주고 갔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앞날의 발전을 위하여 동리주위에 산을 만들어야 한다며 1657년 온 마을 사람들이 인력으로 흙을 운반하여 산(봉우리)을 만들었다 하여 마을이름을 조산(造山)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 후부터 조산리에는 훌륭한 선비, 학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며, 선조 38년(1605) 을사포락(乙巳浦落)으로 산이 붕괴되어 섬이 되었던 것이 1867년 주위의 호수가 대홍수로 매몰되어 현재는 전답(田畓)으로 변하여 과거의 섬을 추상(追想)하여 섬 뜰 즉 도평(島坪)이라 한다.

또한 이 마을의 송림 속에는 고려시대부터 나라의 예법(禮法)에 따라 국태민안(國泰民安)과 풍농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왕이 친히 향축(香祝)을 내려 중사(中祀)로 제례를 올리는 신성한 동해신묘(東海神廟)와, 조선 인조(仁祖) 6년(1628) 조위한(趙緯韓) 양양부사가 고

려 말에 졸(卒)한 그의 선조(先祖)인 용원부원군(龍源府院君) 조인벽(趙仁璧)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자 건립한 동명서원(東溟書院), 그리고 철종(哲宗) 10년(1859) 3월 산불로 양양부(襄陽府)에 551여 호의 민가가 소실되고 이재민이 3,000여명에 달하자 정원기(鄭元基)가 성균관 진사였던 그의 아들과 함께 백미(白米) 천석과 현금 1,000량을 군내 이재민들에게 나누어 구휼(救恤)하여 철종 11년(1860) 조정으로부터 가선대부중추부사오위장정원기불망비(嘉善大夫中樞府事兼五衛將鄭元基不忘碑)를 하사받은 비가 현 조산리 산봉우리아래 세워져있다.

대포영(大浦營)과 성안말

성(城)안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 성종(成宗) 21년(1490)에 강릉 안인포의 수군만호영이 이곳 조산리로 옮겨왔다. 이 대포영은 만호(萬戶)의 지휘 하에 동해안을 방어하던 곳이었는데, 중종(中宗) 14년 경진(庚辰)에 그 주위에 1469척, 높이 12척의 성을 쌓아 동해안에 출몰하는 왜구들을 방비(防備)하는 등 137년간 동해를 지키는 수군영(水軍營)으로 존속하다



동명서원



동해신묘

가 조선 인조 4년(1626년) 방위지가 못된다하여 폐쇄(閉鎖)하였다.

이 대포영에는 양양출신 이봉[李芑/本貫:全州]이 중종(中宗) 정묘(丁卯)에 충무위, 병술(丙戌)에 내금위 등 내직을 지낸 다음 중종 23년인 무자(戊子) 6월에 양양부(襄陽府) 대포만호로 부임하여 재직한 후 명종(明宗) 7년(1552) 임자(壬子)에 졸하여 대포영 인근인 기정리 진수동(眞水洞) 선산에 안장되었다고 한다.

지금 지명인 성안 마을 기준으로 뒤편 북문 뒤에, 그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우물터가 발견되었다. 당시에는 대포영까지는 한선이 드나들었는데 남대천이 양양읍내에서부터 포월리(浦月里)를 거쳐 조산까지 오는 동안 모래와 흙이 쌓여 호수가 생겨 포월(浦月)리를 갯달(溪月:호수의 달)이라고도 불렀고 대포성 앞에 연당(淵塘)이 남아 있었고 구안(溝岸:도랑가), 수담(水畓:물논), 남대단(南大端:남대끝), 계교목(溪橋沐:호수다리목), 계두담(溪頭畓:호수위의 논) 등 호수가 매몰되어 논으로 변한 이름이 남아 있다. 또한 남대천 상류에서 떠내려 온 모래, 자갈, 흙이 쌓여 논, 밭, 집터로 변하였고 70년대 전까지 여러 곳에 호수로 남아있었다.

파도가 밀어올린 모래와 남대천 상류에서 떠내려 온 흙이 쌓이면서 바다의 수심이 얕아지면서 남대천 하구에 호수가 남아 있었는데, 당시 여름철에는 아이들 물놀이장과 낚시터로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모두 매몰되어 호텔과 콘도, 오토캠핑장시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활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다음은 조위한(趙緯韓) 양양부사(襄陽府使)가 1623년(癸亥) 10월부터 1628년(戊辰) 8월까지 양양부사를 재임하면서 당시 양양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던 향교(鄕校)를 크게 중창하고, 훼손(毀撤)될 위기에 처한 대포만호영구관(舊館)에 “동명서원”이라는 편액을 세운 양양동명서원기를 소개한다.』

【襄陽東溟書院記】

余以中丞論事過當,斥補于茲土.下車之初,先以興學校育人才爲急務.重創聖廟而大之,改造齋舍而新之.又置學田以爲諸生朝夕之供,而第念校生多有免



조산리에서 청곡2리에 이르는 도평들(약 50만평)

軍之徒紛紜雜亂,其中雖有俊秀拔萃之才.

내가 중승(中丞)으로서, 일을 지나치게 논의하다가, 좌천되어 이 땅에 처음 왔다. 먼저 학교를 일으켜 인재육성을 급무로 하고, 향교를 크게 중창, 재사를 새롭게 개조하였으며, 또 제생의 아침저녁의 제공을 위하여 학전을 설치하여 다만 생각하건대 군역을 면제받은 무리가 많이 뒤섞여 어지럽고 그 중에는 비록 재주가 출중한 준수도 있었다.

不得精業於黌廡,以此列邑皆設書院于靜散地,爲多士修養之所,而顧此邑獨無焉.

학교에서 정통의 학업이 부득하니, 이로써 여러 고을에서 모두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 서원을 설립하고 많은 선비를 수양하는바 보니 이 고을에만 유독 없다.

余慨然興嗚,鳩材募工,欲效白鹿之舊制矣.

내가 개연히 탄식하고, 재목을 구하고 장인을 모아, 백록동서원의 구제도를 본받고자 한다.

適值朝廷革去本府之大浦鎮,軍器軍糧移于本府,而萬戶所居之館舍,巍然獨存,勢將毀撤而補用於官家.

마침 조정에서 혁거한 본부의 대포진의 군기군량을 본부로 옮겼으니 만호가 실던 관사만 홀로 우뚝 솟아 있어, 장차 그 형세가 훼손될 것이므로 고쳐서 관가로 쓰고자 한다.

余翻然喜曰,此必天公感余愛士之誠,畀此一館,以爲諸生講學肄業之地,何必毀諸,乃因舊館而額之曰,東溟書院.蓋齋房講堂,儼然維新.一鄉之父老諸生,聚而謝焉.

내가 생각을 바꾸어 기뻐하면서, 이는 필시 하느님이 선비를 사랑하는 정성으로 이 관사를 준 것이라고 나는 느끼고서, 제생이 학문을 강론하고 학업을 익히는 곳으로 하고자 하니 어찌 험겠는가. 이에 구관의 편액을 동명서원(東溟書院)이라하고 재실과 방 강당이 근엄하게 일신시켰다. 일향의 어른들과 제생이 모여 사례한다.

(글·사진 문학원)

이달의 책이야기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

카트린 지타, 걷는나무(2015)



“어리석은 사람은 방황하고 현명한 사람은 여행 한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혼자만의 여행.

여기 50개국을 홀로 여행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낸 여자가 있다. 서른일곱 인생 최대의 슬럼프에 빠지게 된 카트린 지타. 오스트리아 최대 일간지 《크로넨 자이퉁》의 기자였던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이 6개월 동안 한 번도 시원하게 웃은 적이 없다는 사실과 10년 동안 기자로 살아오며 남은 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일 중독 증상, 관계단절, 이혼뿐이라는 비참한 삶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혼자 여행을 떠난다.

이 책은 50개국을 여행하며 터득한 여자 혼자 안전하고 멋진 여행을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과 그녀의 일과 사랑,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그 길을 보여준다.

◆ 책 속 한 구절 ◆

멋진 풍경을 볼 때마다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아쉽기도 했지만, 머무르고 싶은 곳에서 있고 싶은 만큼 있을 자유도 있었다. 식사 시간이니까 식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과 상관없이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었다. 같은 곳에 두 번 간다고 불평할 사람도 없었고 늦게 걸거나 빨리 걷는다고 타박할 사람도 없었다. 나는 네 번이나 천문 시계탑을 보러 갔고 정오를 알리는 연주가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그 앞에 앉아 600년 된 천문 시계의 아름다움을 감상했다. 혼자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마음이 이끄는 대로 여행을 즐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_ 115p.

양양교육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13(역사의 진실 편)

설민석 · 스토리박스, 아이휴먼(2020)



우리 아이의 '지'와 '덕'을 책임질 첫 역사책!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13』에서는 X맨을 잡기 위한 역사 여행 중에 위인들의 어린 시절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순신과 류성룡, 안중근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기에, 그분들이 우리 역사를 빛낸 영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모습은 『한국사 대모험』의 어린이 독자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밝혀지는 X맨의 충격적인 정체와 계획!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에 빌붙어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자신의 안위와 부를 추구했던 친일파와 밀정,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인 그들의 이야기도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13』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식사에 대한 생각

비 윌슨, 어크로스(2020)

세계는 점점 더 부유해지는데 우리의 식탁은 왜 갈수록 가난해지는가

“이 책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늘 배부르지만 점점 허약해지는 사파옌스들에게 전하는 WSJ 칼럼니스트 비 윌슨의 식사에 대한 질문

고기 아니면 채소, 탄수화물 아니면 지방, 슈퍼푸드 아니면 정크푸드,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지금처럼 먹게 되었을까 전작 《포크를 생각하다》, 《식습관의 인문학》을 통해 세계인의 식탁과 식문화에 대한 논쟁적이고 대담한 이야기를 전해준 비 윌슨이 이번에는 ‘우리 식사의 명암’을 집중 조명한다. 다.

글·그림 출판사 제공 자료 발췌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04/06 <인비저블맨>
<다크 워터스>, <젠틀맨>
04/08 <주디>, <폐왕별희>
04/15 <온 워드 : 단 하루의 기적>



상영(예정)작은 영화배급이나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yangyang@cinema.org ☎033-673-7050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유태원기전	1명	경리사무원	08:30~18:00 (주5일)	월200만원
해강건설주식회사	1명	토목시공기술자 (경력자)	08:00~17:00 (주5일)	월200만원이상
팜윌레븐베이커	2명	바리스타	11:00~18:00 (휴일근무)	시급8,590원 (협의)
대왕마트	6명	상품진열원, 계산원 등	2교대	월180만원
(유)청수환경 엔지니어링	1명	건축캐드원	09:00~17:00 (주5일)	월180만원
일양종합금속(주)	2명	창호설치원 용접원	08:00~18:00 (주6일)	월200만원이상
(유)양양지하 환경지원센터	2명	제철용분리선별원	09:00~18:00 (주5일)	월179만원
헬로미스	1명	통메이드	09:00~16:00 (주6일)	월200만원
푸른하늘환경(주)	1명	수질환경기술자 (자격증소지자)	09:00~18:00 (주5일)	연2,400만원이상
해강건설	2명	토목시공기술자 (경력자)	09:00~18:00 (주5일)	월250만원
주식회사 한원	1명	건축시공기술자 (경력수첩소지 필수)	09:00~18:00 (주6일)	월400만원 (협의)
썸비치양양	1명	보건관리자 (간호사)	10:00~19:00 (주5일)	협의
	1명	기계설비유지보수원 (배수관리기능사 필수)	2교대	

**월 50만원
최대 6개월
300만원 지원!!**

취업 성공 시엔
50만원도
준다고?

취업상담,
컨설팅도
해준대!

2020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CHEER UP!

강원청년!

지원내용 구직활동 지원금 + 고용서비스 지원

- 구직활동지원금: 1인 300만원(2020.4.1 ~ 2020.12.31)에 한해 1회 지급
- 급여에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하여 지원
- 취업컨설팅: 지원금 수급 중 취업컨설팅 시 1인 50만원(최대 50만원) 지원
- 고용서비스: 구직신청부터 취업까지 1:1 상담, 24시간 응대

모집기간 2020. 3.23 ~ 2020. 4.20.

문의처 강원도청 출생지 033-120, 행정안전부(24시간) 033-240-2735, 2775, 3405, 3406, 4336

신청방법 강원도청(www.gangwon.go.kr)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본직(원) 무직(휴직) 상태인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

- 만 18~34세(대학원 진학자는 대학원 재학 중)
- 취업희망: 기도 출생지는 출생지 2년 이내
- 가구소득상한액: 1인 가구 1,500만원

강원도

치매공공후견 후견인 후보자 모집 안내문

· 후견인 자격

- 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민법」 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후견인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자

· 후견인 역할

-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 신청, 일상생활의 사무업무, 통장 및 재산관리 등 지원 또는 대리

· 지원내역

- 후견인 활동비 · 교육비 · 교육여비 지급

· 신청방법

- 치매공공후견인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및 우편 발송
- * 지원서 및 관련 공고는 「강원도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사항」에서 확인

· 문의

- 강원도광역치매센터 자원연계팀 (☎033-257-9165)

소중한 자연자원, 밀원수를 보호합시다.

· 밀원수란 ?

- 벌이 꿀을 채취하여 오는 꽃이 피는 나무(꽃나무)를 말합니다.

(예) : 아카시나무, 피나무, 엄나무, 밤나무 등

- 넓게 보면 나무는 아니지만 꽃이 피는 유실수(과수)와 들꽃 등에서도 꿀이 있으므로 밀원(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 중에서 꿀을 가장 많이 딸 수 있는 나무가 아카시나무입니다.

· 밀원수를 보호해야 꿀을 많이 딸 수 있습니다.

- 아카시나무는 밀원수 중에서 꿀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무이나 화목(벌감)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당장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이유로 마구 베어 제거함에 따라 최근 양봉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꽃도 아름답고, 향기도 좋고, 꿀도 많이나는 아카시나무 보호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운영

- **사업목표**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 **지급대상**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 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 (만15~39세)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매칭(1:3) 지원 (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4.7(화) ~ 4.24(금)

- **신청방법** : 읍 · 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 (09:00~18:00)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저축동의서 ④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⑤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정보꾸러미

두리두리 아름다운 선거 청길음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할 수 있다! (O)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진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진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진다.

할 수 없다! (X)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진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진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진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 연령 18세(2002.4.16. 이전 출생자) 이상
선거일 투표 4월 15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4월 10일(금)~11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 신고전화 1644-8295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을 괴롭힐 때
장애인이 심하게 폭력을 행사할 때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게 만들 때
장애인을 부수거나 하는 사람이나 물건으로 폭행할 때
장애인을 부수거나 하는 사람이나 물건으로 폭행할 때
장애인을 부수거나 하는 사람이나 물건으로 폭행할 때

장애인학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1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2 조사를 합니다.
- 3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4 잘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연락처
1644-8295
1644-8295
1644-8295

장애인학대 신고센터
1644-8295
1644-8295
1644-8295

장애인학대 신고센터
1644-8295
1644-8295
1644-8295

악국별 공적 마스크 공급 시간표

- 도매상, 악국 공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악국당 1일 공급량 250매

구분	악국명	주 소	판매시간		
			월~금	토	일
1	중앙악국	양양읍 남문5길 4-1	11:00	11:00	-
2	양양군민악국	양양읍 양양로 64	16:00	11:30	-
3	백세프라자악국	양양읍 양양로 51	15:00	15:00	-
4	양양온누리악국	양양읍 양양로 60-1	판매안함	판매안함	판매안함
5	신악국	양양읍 양양로 9-1	10:00	10:00	-
6	이도악국	양양읍 양양로 36	월요일 13:30 화~금 09:00	09:00	-
7	신낙산악국	강현면 낙산사로 37	11:00	11:00	11:00
8	강현악국	강현면 동해대로 3585	10:00	휴무	10:00
9	우리악국	강현면 동해대로 3084	09:30	09:30	09:30
10	태평양악국	강현면 동해대로 3551	12:00	12:00	12:00
11	강원프라자악국	강현면 물치1길 4	09:30	09:30	휴무
12	바다악국	강현면 동해대로 3589	09:30	09:30	09:30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물~ 밥은 잘 챙겨 먹어?”
“걱정지~ 뭐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까이 어울리는
일이 어려워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괜찮다”며
치수 격려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코로나19 우리가 이깁니다

연락처
1644-8295

국내·국제선 **무제한** 항공권

INFINITicket

인피니티켓

탑승기간 | 국내선: 구매 후 12월 말(2020년12월31일)까지
국제선: 첫 탑승일로부터 6개월간(2021년말 한도)

구매문의 : 플라이강원 TF팀 김희경 033-680-0076

FLY GANGWON

무제한 탑승권
INFINITY BOARDING PASS

1 ▶▶ 인피니 혼행 1인

SEAT

본인 무제한 항공권
495,000원

2 ▶▶ 인피니 커플 2인

SEAT

본인 + 1인 무기명 동반 탑승
990,000원

3 ▶▶ 인피니 컴퍼니 10인

SEAT

10인 기명 무제한 법인 항공권
3,990,000원

4 ▶▶ 인피니 패밀리1 3인

SEAT

본인+2인 동반 탑승 (6인 지정)
1,350,000원

5 ▶▶ 인피니 패밀리2 4인

SEAT

본인+3인 동반 탑승 (7인 지정)
1,720,000원

6 ▶▶ 인피니 패밀리3 5인

SEAT

본인+4인 동반 탑승 (8인 지정)
2,050,000원

*본인만 단독 탑승 가능합니다 (지정인 단독 탑승 불가)

MEMBER BENEFIT

고객 혜택



BENEFIT



주중 무제한, 주말과 극성수기에도 국내선, 국제선 전 노선 무제한 탑승



위탁 수하물 30kg 무료 / 수하물 우선 수취 혜택 / 선호 좌석 무료 배정



탑승시마다 Cafe 4V 수제빵, 커피 무료 제공



취항노선: 제주/타이베이/클락

예정노선: 타이중/까오슝/마닐라/하노이/호치민/홍콩/나리타/오사카/중국

*유의사항

- 유류할증료 및 제세금 별도

- 탑승불가기간: 2020년 4/29~5/5(석가탄신일, 노동절, 어린이날), 9/30~10/4(추석)
2021년 2/10~14(구정), 9/17~22(추석)

- 판매기간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약관 참조